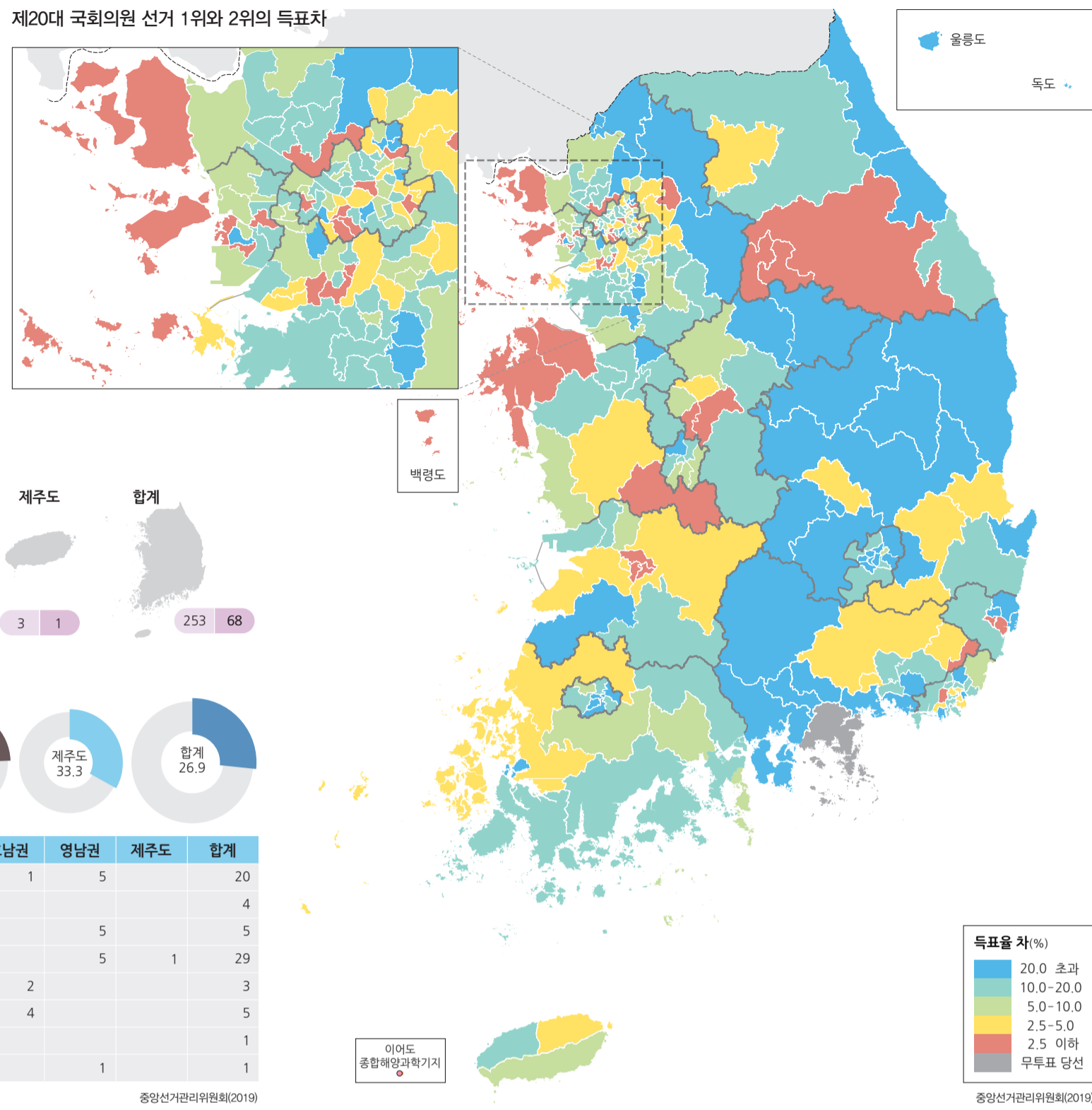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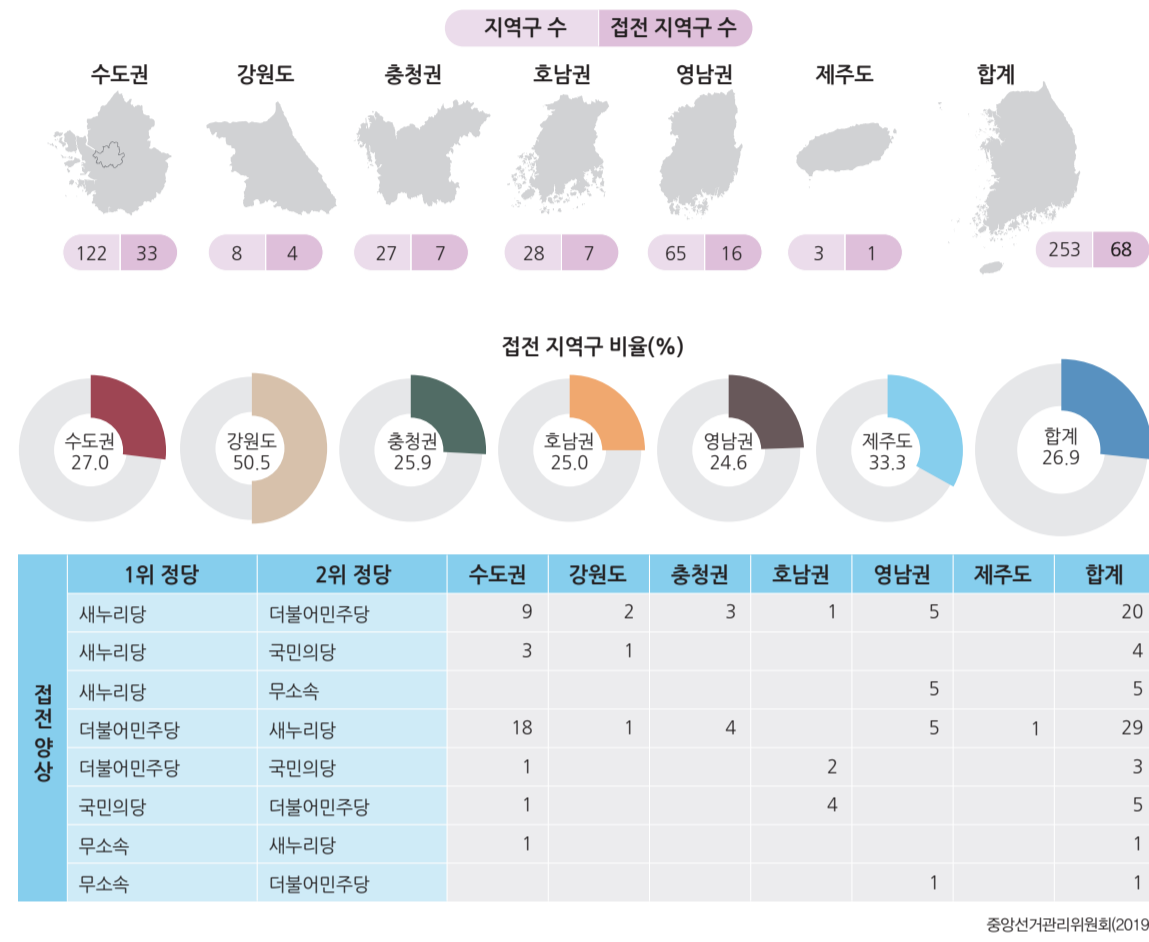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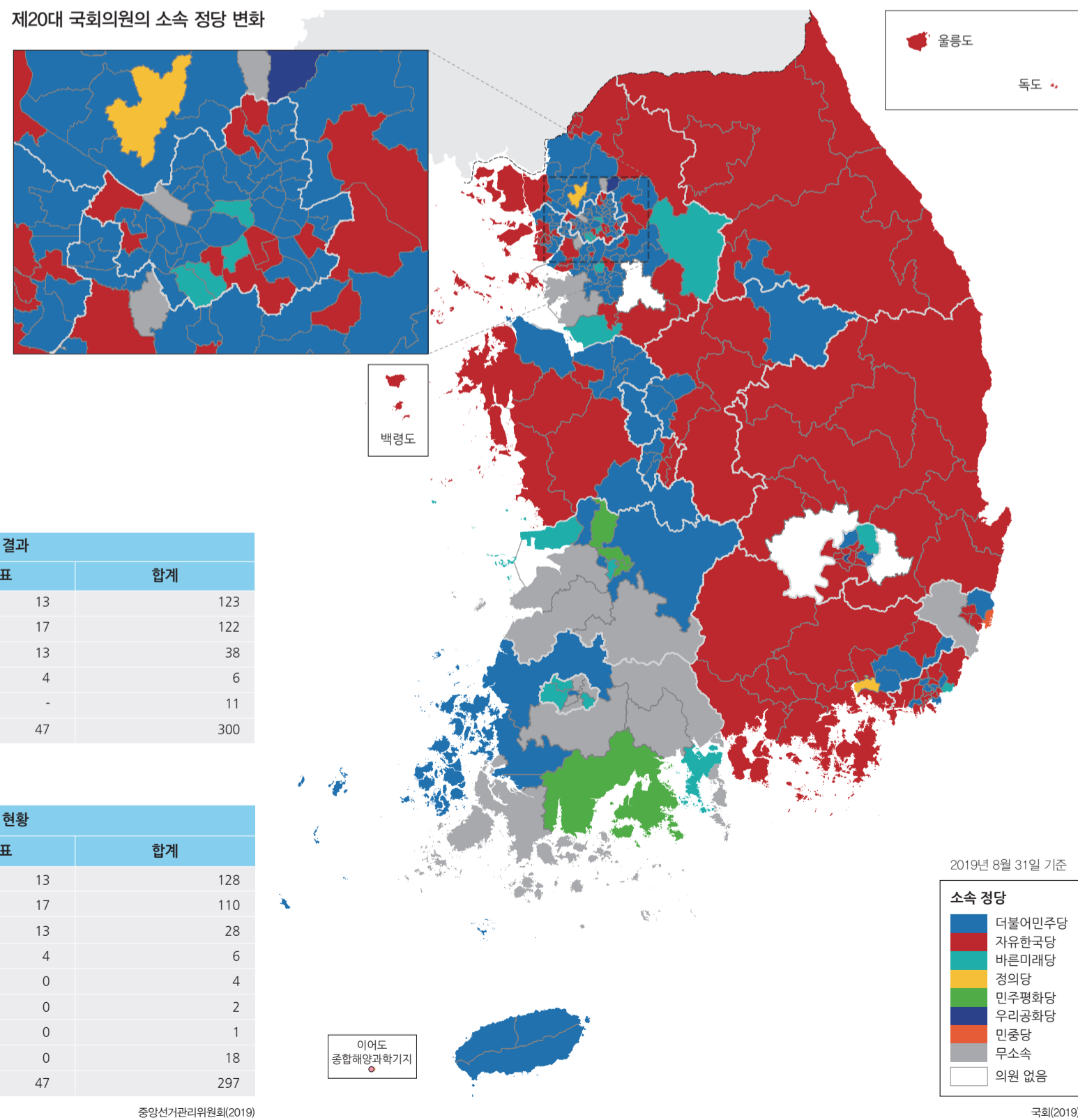


당선인과 2위 득표자의 득표율 차이는 선거의 이슈, 지역구 후보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지지 정당의 지역적 분포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득표율 차이가 적고, 호남과 영남에서는 득표율 차이가 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통적 여당 지역에서의 야권 후보의 강세, 호남에서의 진보 정당의 약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정당 간 초점전 등으로 당선인과 2위 득표자의 득표율 차이가 근소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득표율 차이가 5.0% 미만인 지역구는 총 68개로 전체 지역구의 약 27%가 집전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득표율 차이가 2.5% 미만인 지역구는 31개에 달했다. 득표 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26표였으며, 단독 후보 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지역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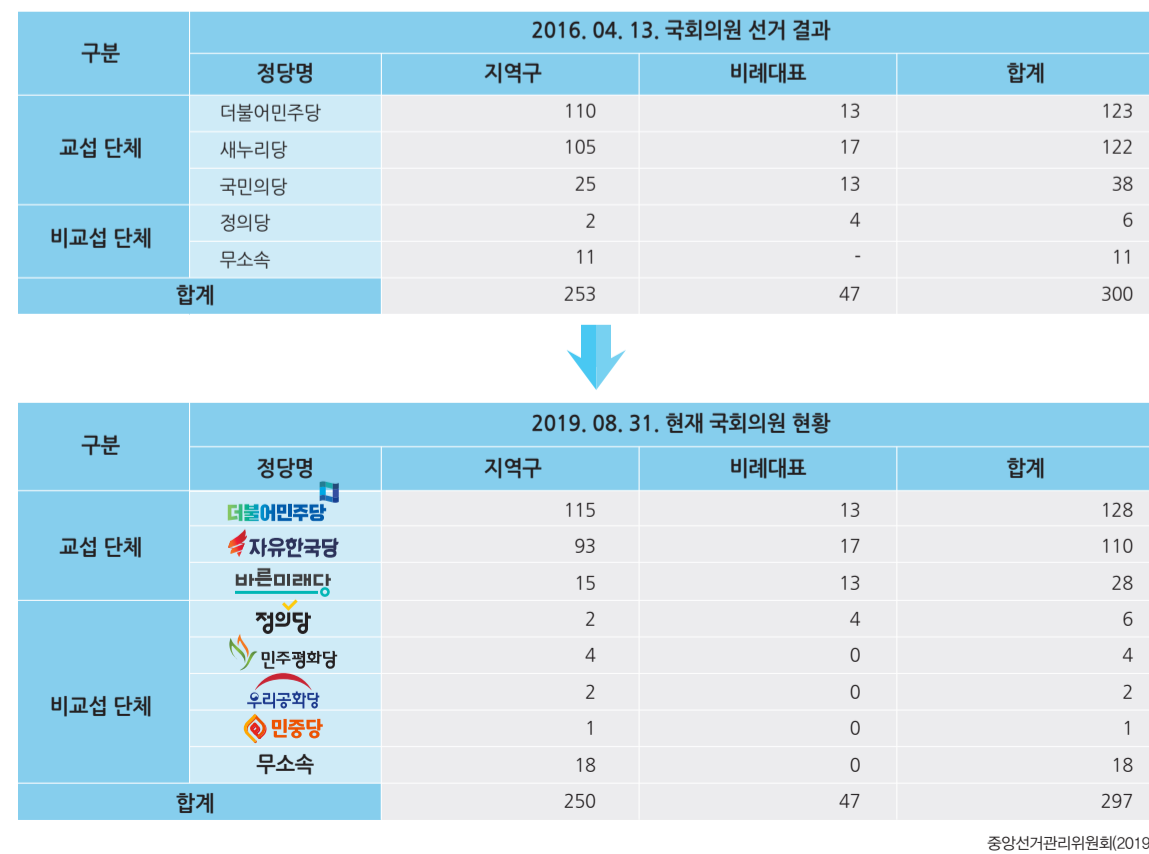
1위와 2위 표차 5.0% 미만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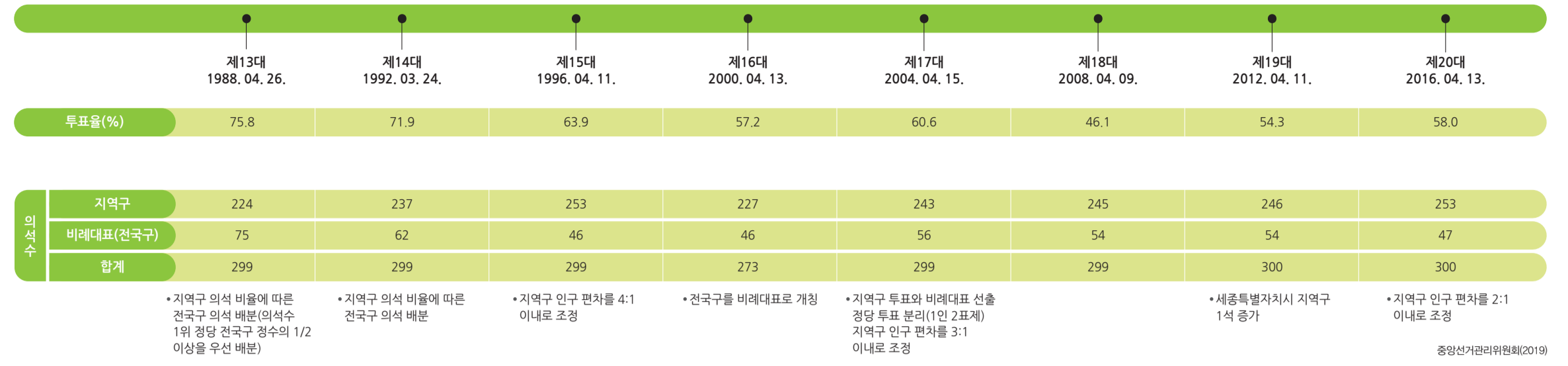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현재까지 정당 및 정당별 국회의원 수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7년 1월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바른정당을 창당하였다. 새누리당은 2017년 2월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였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 위주의 바른정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의원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은 2018년 2월 바른미래당을 창당하였으며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를 승계하였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반대한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018년 2월 민주평화당이 창당되었으며, 2017년 8월과 10월에 우리공화당과 민주당이 창당되었다. 한편 2019년 8월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무소속 의원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지역구 253명의 의원 중 18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15개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 3개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공석이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여 차기 순번 후보에게 4회 승계되었다(더불어민주당 3회, 바른미래당 1회).



정당별 의석수 변화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의원 정수와 의석수 배분 방식의 변화



역대 국회의원 선거 시도별 투표율

구분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전국	75.8	71.9	63.9	57.2	60.6	54.5	54.2	58.0
서울	69.3	69.2	61.0	54.3	62.2	53.9	55.5	59.8
부산	77.7	69.1	60.5	55.4	61.9	49.5	54.6	55.4
대구	76.8	66.6	60.9	53.5	59.3	45.9	52.3	54.8
인천	70.1	68.0	60.1	53.4	57.4	50.9	51.4	55.6
광주	77.9	70.1	54.5	54.0	60.2	49.8	52.7	61.6
대전		70.1	63.0	53.3	58.9	52.9	54.2	58.6
울산				59.1	62.0	55.1	55.7	59.2
세종							59.2	63.5
경기	71.3	69.6	61.5	54.9	59.7	51.8	52.6	57.5
강원	82.0	78.0	69.3	62.9	59.7	62.3	55.7	57.7
충북	83.1	76.0	68.3	60.8	58.2	58.8	54.6	57.3
충남	78.8	76.0	68.7	60.1	56.0	56.5	52.4	55.5
전북	80.0	74.3	68.3	60.6	61.2	59.3	53.6	62.9
전남	80.3	75.4	69.8	66.8	63.4	64.3	56.7	63.7
경북	83.3	78.4	71.7	64.6	61.5	59.4	56.0	56.7
경남	79.9	77.3	66.0	60.6	62.3	61.8	57.2	57.0
제주	82.6	78.6	71.1	67.2	61.1	65.1	54.7	57.2

사전 투표제와 재외 국민 선거

사전 투표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본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는 제도로 2012년 도입되어 2013년 두 차례 보궐 선거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 선거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사전 투표제 도입 이후 사전 투표율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투표율 중 사전 투표율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제도 시행 초기 20%였던 것이 30%를 상회하고 있다. 재외 선거 제도는 재외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09년 재외 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실시되고 있다. 재외 선거 제도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행 중이며 지방 선거 및 재보궐 선거 등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출장소 등 169개 공관을 기준으로 198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재외 추정 선거권자 약 198만 명 중 152,217명이 선거인으로 등록하였고 이중 63,797명이 투표하여 41.4%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 국민 투표

